

전국 사격 유망주들 한자리에 남원시, 백향과 우수성 알린다

임실군, 21~25일 제5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학생사격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전국 사격 유망주들의 열정과 실력을 겨루는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임실군이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청응면 소재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에서 '제5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학생사격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대한사격연맹(회장 강연술)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사격연맹(회장 고상철)이 주관하여 전국의 초·중·고·대학생 사격선수단 총 230개 팀, 1,748명이 참가해 공기소총, 공기권총, 트랩 등 전 종목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개회식에는 심 민 임실군수를 비롯하여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 엄현미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정책과장, 강연술 대한사격연맹 회장, 고상철 전북특별자치도사격연맹 회장, 이종석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김병이 임실군체육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



임실군이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청응면 소재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에서 '제5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학생사격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기원했다. 이번 대회의 뒤를 이어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제49회 회장기 전국 중고등 학생 사격대회'도 펼쳐질 계획으로, 전국에서 사격선수단 및 임원 1,000여 명이 다시 한번 임실군을 찾아 풍성한 활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 민 군수는 환영사에서 "임실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 선수들이 기량을 맘껏 펼치고, 우리 군의 스포츠 인프라와 역량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순창군, 귀농귀촌 정책 우수성 입증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박람회 '최우수 지자체상' 수상

순창군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박람회'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귀농귀촌 유치 정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입증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북도민일보가 주최하고 (주)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의 귀농귀촌 박람회로 전국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귀농귀촌 유치와 정책 홍보에 나섰다.

군은 박람회 기간 동안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 및 신축 지원 사업 △농지·주택 매물 정보 △청년농귀농 성공사례 등을 소개하며 실질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험형 정보 제공에 주력했다. 실제로 군은 그간 △이사정착비 지원사업 △귀농자 소득기반 조성사업 △주택 수리 및 신축 지원사업 △귀농



귀촌 멘토링 프로그램 등 정착에 필요한 전 과정을 폭넓게 지원해 왔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이 도시민들에게 단순한 이주지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다가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이주민과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남원시보건소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하천 범람 등 수해로 감염병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으로 인한 모기 매개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오염된 물 등에 직접 노출로 인한 접촉

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의 작업 시에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 남원시 보건소는 '하절기 비상방역 체계'를 통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업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주택가와 하천변, 캠핑장 주변 등 주요 생활권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추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서울 K-FOOD 핵심공간 한식진흥원 이음홀서 특별전 개최

남원시는 서울 K-FOOD 핵심공간 '한식진흥원 이음홀'에서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One the Namwon 백향과 한 모금, 남원 한 바퀴'를 주제로 7월 22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지리산 청정지역이 키운 남원 백향과를 활용한 상설 전시로, 소비자에게 지역 특산물인 백향과(Passion Fruit)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 백향과 소세, 가공 상품, 굿즈 등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전시 중에는 백향과 가공제품 시식 행사와 백향과를 활용한 쿠키클래스도 진행, 쿠키클래스는 '백향과 만들기'와 '강정 팩샌드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초등학교생(1~3학년, 보호자 동반 신청 필수)을 대상으로 2025



년 8월 1일에 진행되며, 신청은 한식문화공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의회, 제347회 임시회 개최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가 22일 본회의장에서 제34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31일까지 10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2일부터 28일까지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29일에는 조례안, 규칙안 등 25건의 각종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3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의회는 군정 계획의 방향성과 중점과제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정책의 실행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장종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는 연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집행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 목표는 군민의 행복이며, 의회는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고 전했다. 한편, 운영행정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성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청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일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이며, 농업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김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정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생활임금 조례안』, 이성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이다. /임실=진흥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수족구병 주의 당부

남원시보건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족구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주요 증상으로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피로감(권태감), 입 안의 불 안락, 잇몸 및 혀에 작은 붉은 반점 및 수포가 나타나는, 손·발·양덩이에 피부

발진이 동반된다. 수족구병 의심 증상이 보이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고, 환자와 관련된 물품은 세탁과 소독에 관리해야 한다. 예방은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장난감, 놀이기구, 문 손잡이와 집기 등 소독하기 △배설물이 묻은 옷 등 철저히 세탁하기가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순창군, 고추 청고병 예방 미생물제 '청고킬' 보급

순창군이 고추 재배 농가의 오랜 고민거리인 청고병(시들음병) 예방을 위해 자체 개발한 미생물제 '청고킬'을 보급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고병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토양전염병으로, 줄기와 뿌리가 썩어 작물이 급격히 시들고 수확량이 급감하는 피해를 일으킨다. 특히 방제가 까다롭고 재발률이 높아 매년 많은 농가가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순창군농업기술센터는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방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생물제 '청고킬'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비크홀테리아 균주를 활용해 고추 청고병의 주요 원인균을 억제하고, 토양 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 작물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뛰어나다.

'청고킬'은 2리터당 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되고 있으며, 방제 효율을 높이면서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시범 농가에서는 청고병 발생이 크게 줄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여름 휴가철 대비 등록아영장 안전점검 실시

순창군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내 아영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오는 8월 22일까지 관내 일반아영장 13곳과 자동차 아영장 1곳 등 총 1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관광객과 피서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아영장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아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점검 항목은 자연재해 대비 상태부터 시설 위생관리, 전기·가스 안전, 화재 예방 조치까지 전방적인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시정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에게 시정보안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렸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바람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돌렸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